

7월 19일 토요일 / 알제리 (19위)

개신교 교회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또다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알제리의 거의 모든 개신교 교회는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2024년에 집회를 중단해야 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립되었습니다. '무슬림의 신앙을 흔드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것은 기독교 표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한합니다. 대부분 무슬림에서 개종한 새신자들은 지역사회와 대가족의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찾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월 20일 일요일 / 부르키나파소 (20위)

소레 목사는 성장하는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고향 마을에 이슬람 무장 세력의 공격이 세 번째 계속되면서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피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과 끔찍한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매일 밤 가족들이 자는 동안 뱀을 죽이면서 경계를 서야 했습니다."라고 목사는 말합니다. 목사의 가정은 부르키나파소 내 200만 명의 난민 중 한 가정이며, 난민의 상당수는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인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인입니다. 이 곳의 모든 기독교인이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월 21일 월요일 / 시리아 (18위)

2024년 말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이후,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당국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릅니다. 신자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무슬림이나 드루즈족 출신 개종자들을 위해 문을 열어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치 상황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시리아 북동부의 많은 쿠르드 무슬림들이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7월 22일 화요일 / 중앙아시아

오픈도어 사역자들이 제공하는 여름 청소년 캠프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임은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젊은이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입니다. 캠프 참가자 엠마는 "저한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되었어요."라고 말합니다. 중앙아시아의 박해 받는 청소년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알아가며 주님께로 인도되고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주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7월 23일 수요일 / 북한 (1위)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북한의 지도자들을 신처럼 대우해야 하며,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범죄자로 간주됩니다. 발각된 기독교인들은 체포되어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북한의 기독교인은 비밀

리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놀랍게도 북한에는 수많은 비밀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서 용감하게 믿음을 지키는 신자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노동자처럼 신자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24일 목요일 / 소말리아 (2위)

소말리아에는 모든 사람이 무슬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극단주의자가 기독교인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이기도 합니다. 소말리아에는 불과 몇 백 명의 기독교인만이 있으며, 그들은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의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 주시고,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7월 25일 금요일 / 미얀마 (13위)

큰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의 형제자매들이 후원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은 큰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는 귀한 위로가 됩니다" 미얀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결코 버림받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7월 26일 토요일 / 쿠바 (26위)

쿠바의 공산당 정부는 새로운 교회의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교회가 불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벌금을 부과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심지어 교회가 철거되는 등의 위협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를 감시하는 정부 당국자들이 그들이 듣는 복음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도록 기도합니다.

7월 27일 일요일 / 미얀마 (13위)

양* 목사는 총과 폭탄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심 없이 이동해야만 합니다. 미얀마에서 내전이 계속되면서 군대의 공습으로 기독교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신자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약 4만 명의 기독교인이 쫓겨나거나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난민 신자들이 음식, 거처,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월 28일 월요일 / 수단 (5위)

무슬림이 대다수인 수단에서 신자들의 삶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전으로 인해 수단은 혼란에 빠졌고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

생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 나라에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지만 기독교인들도 박해를 받고 있으며,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인도적 지원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기도합니다. 파괴적인 갈등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낙담하고 지친 신자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29일 화요일 / 에리트레아 (6위)

에리트레아는 예수님을 따르기에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입니다. 그는 교회 장로가 되어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압박과 고통으로 인해 때로는 고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그는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자들을 은혜로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월 30일 수요일 / 인도 (11위)

소녀 프리티*는 할아버지 아쇼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독교인이 된 후 집에서 기도 모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힌두 극단주의자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쇠막대기와 나무 몽둥이로 할아버지를 때리고, 눈에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프리티는 '정말 무서웠어요.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들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지키며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녀와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7월 31일 목요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9월부터 오픈도어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30명의 참가자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참여자들이 브라더 앤드류와 개척자들이 가졌던 신앙의 유산을 잘 배우고, 오픈도어의 기도용사로 온전히 세워지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는 귀한 분들에게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도월력의 기도제목들은 한국오픈도어 카카오톡채널에서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월력은 홈페이지 요청하기에서 월간 『오픈도어』OpenDoors 신청 또는 한국오픈도어로 전화하시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등록번호-종량, 라00042 부록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5년 07월
VOL.

기도월력 279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 사도행전 4:29 -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7월 1일 화요일 / 이란 (9위)

조셉 목사의 아내 리다(56세)가 에빈 교도소에서 한 달 간 구금되었다가 5만 달러(한화 약 6,8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 다. 이번 체포는 3개월 넘게 다시 수감 중인 남편 조셉 목사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더 큰 전략으로 보입니다. 리다 부인의 마음과 몸이 치유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조셉 목사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조 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7월 2일 수요일 / 스리랑카 (61위)

4월 27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낯선 두 사람이 데릭 목사가 인도하는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목사에게 예배를 중단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의 소란이 있는 동안 마을 스님이 교회 밖에 있었습니다. 스님이 그 들을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마을은 불교의 근거지로 기 독교인에 대한 반감이 큼니다. 교회는 스리랑카에서 잘 알려진 교회였지 만 수년 동안 반대는 계속 있었습니다. 갈등 상황이 평화롭게 해결되고, 반 대하는 마음이 누그러지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도록 기도 합니다. 스님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교회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7월 3일 목요일 / 팔레스타인 (62위)

서안지구의 기독교 공동체는 현재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베들레헴과 같은 곳의 관광은 거의 완전히 중단되어 관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많은 기 독교인들이 실직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은 현 재는 이스라엘 입국이 금지되어 수입이 없습니다. 몇 달 안에 많은 기독교인이 팔레스타인을 떠날 우려가 있습니다. 서안지구의 기독교인을 주 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기 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지 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월 4일 금요일 / 팔레스타인 (62위)

가자지구의 기독교인들도 가자지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식량이 부족합니다. 폭격과 총격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교회 건물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2023년 10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수백 명의 기독 교인들이 가자시티의 가톨릭과 정교회 건물에 피난처를 마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식료품 반입을 차단했기 때문에 식료품을 사러 나갈 수 있 어 도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전쟁이 조속히 끝나고 이들의 상황이 곧 나아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월 5일 토요일 / 아프가니스탄 (10위)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살해되거나 고문을 당하며, 동료 신자들

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도록 위협을 받습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이후 많은 신자가 도망쳐 이웃 국가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머물기를 선택 했거나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박해받는 신자들 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6일 일요일 / 멕시코 (31위)

마약 카르텔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식당에서 식사 전 기도를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다른 공개적인 신앙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카르 텔의 관심을 끌어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의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들 의 마음이 강건해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박해를 끝 까지 견뎌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월 7일 월요일 / 이라크 (17위) -비밀리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캠페인

야신*과 같은 무슬림에서 개종한 이라크 신자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기 도합니다. 그는 가족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이슬 람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 다. 야신은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그 안에 담긴 아름다운 말씀 때문에 울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비밀 신자들이 고립되고 박해 속에 있을 때 성경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월 8일 화요일 / 이란 (9위) -비밀리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캠페인

소마예*가 고국 이란에서 예수님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기독교는 참이 아니고 이슬람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초대를 받아 지역 교회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변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을 예배에 초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 록 기도합니다. 소마예는 비밀 가정교회를 시작했고, 50명으로 성장하여 치유와 변화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신자들을 일으켜 주 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마예는 현재 이란의 비밀 기독교인들을 섬기는 온라 인 사역도 이끌고 있습니다.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9일 수요일 / 라오스 (22위)

라오스 북부에서 기독교 가정교회 지도자 4명이 체포되어 아직 수감되 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들을 신고한 후 당국은 예배를 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속히 풀려나도록 기도합니다. 이들의 가족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격려하고 있 는 오픈도어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19명의 신자들 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을 주민들과 당국이 신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 시하는 가운데,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월 10일 목요일 / 이집트 (40위)

아담과 디나 부부는 이슬람에서 개종했습니다. 아담의 아버지는 그들의 개종 사실을 알게 되자 배교자라고 부르며 죽어 마땅하다고 하며 죽이겠 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날 부부는 도망쳤습니다. 부부에게 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교회의 지원으로 아담은 생계를 위해 전동 화물차 를 지원받았고, 부부는 안전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이 부부가 두려움이 나 망설임 없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7월 11일 금요일 / 스리랑카 (61위)

6월 1일, 산타남 목사는 이웃의 신고로 부당하게 경찰서에서 24시간 간 혔다가 풀려났습니다. 교회에 문을 설치하려던 중 이웃을 방해했다는 혐 의를 받았습니다. 신고한 이웃 주민은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종종 자신의 권력과 뇌물을 사용해서 경찰을 목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예배 중에 교회에 돌을 던지고 밤에는 폭죽을 터뜨려 목회 자를 겁주고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목사는 일부 마 을 주민들로부터 이웃 주민들이 목사를 공격하기 위해 폭도들을 조직했 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와 가족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목사는 이웃에게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참고 지냈습니다. 이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월 12일 토요일 / 중국 (15위)

망*은 중국의 후미진 골목에서 성경을 차에 싣고 지인들에게 연락합니 다. 당국이 휴대폰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망과 친구들이 체포되 었으나 망은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체포 이후 가끔씩 경찰이 찾아와 그의 집을 수색합니다. 그는 사업을 잃었고, 장인은 아내와 딸을 못 만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소명 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혼자가 아니며 하나 님의 돌보심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7월 13일 일요일 /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많은 청각장애인들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나는 청각장애 여성들에게 은밀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처음으로 사랑받고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경험하고 있습니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온전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이 얼마 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라나와 같은 사역자들 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셔서 사역을 안전하게 감당하고, 더 많은 청각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7월 14일 월요일 / 파키스탄 (8위)

기독교와 힌두교 등의 소수 종교를 가진 소녀들 가운데 매년 1,000명 정 도가 납치되어 결혼과 개종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소수자, 특히

가난한 기독교 공동체는 소녀 납치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부모들은 잃어 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공식적인 침묵과 공모 를 경험합니다. 소중한 소녀들을 납치, 강제 결혼, 강제 개종으로부터 보 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집에 돌아와 쉴 때, 놀 러 나갈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7월 15일 화요일 / 이란 (9위)

기독교 단체와 연계하여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할레 사티(46)가 15개월여 만인 5월 31일 에빈 교도소에서 석방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티는 2년간 여행 금지 처분 을 받았으며, 언론과의 접촉이나 이란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하는 조건으 로 석방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옥에서 그녀가 견뎌왔던 대우 에 대한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란 정부가 자 국민을 신앙을 이유로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도록 기도합니다.

7월 16일 수요일 / 인도네시아 (59위)

8살의 크리스토펠은 단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고학 년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 크리스토펠의 부 모와 여동생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을 감싸기를 기도합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힘을 얻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비극이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의미 있 는 성찰과 정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특히 종교적 편협함으로 인한 괴롭힘 이 다시는 용납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보호받고, 힘을 얻으며, 자 신의 목소리를 내고 함께 연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기를 기도합니다.

7월 17일 목요일 / 예멘 (3위)

제자 훈련을 담당하는 여성 리더 '페이자'와 남성 리더인 '랜드'가 있습니다. 두 지도자는 성경을 새 신자들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신념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 불일치는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시작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연합하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작 용하도록, 신념과 연민이 모두 반영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젊은 신자들, 특히 혼란과 고난에 빠진 신자들이 분열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참 목자의 음성을 따라 믿음 안에서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월 18일 금요일 / 방글라데시 (24위)

30세의 젊은 전도자이자 평신도 지도자인 나히드 바부는 이슬람에서 개 종한 기독교인입니다. 나히드 형제는 신학 공부를 하며 직장과 지역 교회 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지역 교회에 사람들이 쉽게 가서 성경과 함께 기독교 서적을 읽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 을 꿈꿉니다. 그는 또한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섬기고 싶어 합 니다. 이 청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기를 기도합니다.